

공정한 재판

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길에서 돈주머니 하나를 주웠는데 그 안에는 1천 달러의 돈이 들어 있었다.

농부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 아내에게 보이자 아내는

“여보,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느님께서 내리신 은혜일거예요.”

하며 크게 기뻐하였다.

그러나 다음 날 돈을 잃어버린 부자가 ‘자기 돈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백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’는 방을 여기저기에 써 붙인 것을 보고 농부는

“여보,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 줍시다. 그리고 1백 달러의 보상금만 받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.”

이렇게 말하며 방에 써 붙인 주소를 찾아가 주머니를 건네 주었다. 그리고 약속대로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했다.

그런데 웬일인지 부자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

“이것은 내 돈주머니가 분명하다. 그런데 내 돈주머니에는 1천 5백달러가 있었는데 왜 1천 달러만 가져왔느냐. 어서 정직하게 5백달러를 마저 내놓아야 보상금을 주겠다.”

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. 농부는 어이가 없어

“나는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소.”

하고 정직하게 말했지만 부자는 들은 체도 안하고 도리어 농부를 관가에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.

재판관은 먼저 농부에게 물었다.

“당신이 주은 이 돈주머니 안에는 얼마가 들어 있었소?”

“저는 한 푼도 떼지 않고 주은 그대로 1천 달러 전부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.”

그 다음에 재판관은 부자에게 물었다.

“당신이 잃어버린 돈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 있었소?”

“제가 잃은 돈주머니 안에 1천 5백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.”

이렇게 태연하게 말하였다.

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재판관은

“1천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농부의 말도 옳고 1천 5백 달러를 잃었다는 부자의 말도 거짓이 아니므로, 1천 달러가 들어있는 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주

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. 그러니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돈은 관가에서 맡아 두기로 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는 법의 규정대로 주운 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백 달러의 보상금을 이 돈에서 떼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.”

이렇게 판결을 내렸다.

그러자 부자는 크게 당황하여

“재판관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잃어버린 돈은 1천 달러였습니다. 그 돈에서 약속했던 보상금을 안 주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. 용서하여 주십시오.”

이렇게 사죄하면서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.

“그대는 재판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죄가 인정되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돈은 나라에서 몰수한다.”

이렇게 선고하였다.

재판관의 재치로 이렇게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어 농부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벗고 보상금까지 받았으나 욕심 많은 부자는 자기 꾀에 빠져 벌을 받게 되었다.